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2호 [루게 제2183호]

주제 101
(2012). 8

4

토요일

음력 6. 17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 101 (2012)년 7월 26일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해 나가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섭니다.

나는 이미 여러 기회에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이 아직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깊이있게 리해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해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그것을 한갓 구호로 웨치거나 기발처럼 들고나가는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 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었고 외국방문의 길에 게실 때에는 두고운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곤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부대주변의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것을 보시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병사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담하게 꾸러지고 살구나나무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중대병영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중대라고 민족의 향취를 담아 정답게 불러주곤 하시였습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

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이었으며 력사에 류례없는 매우 준엄한 투쟁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걸,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 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있습니다. 어느해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력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솜옷도 오래 입으면 얇아져 추위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여년나마 그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시어 병사들을 한몸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아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으신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증언자료 남아있을것입니다.

이번에 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열병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한세기전에 총대가 약한탓으로 국권을 무참히 빼앗겼던 우리 조국이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헤쳐오신 장군님의 선군장정을 돌이켜볼 때면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주신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값높고 숭고한것이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엄혹한 속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토지답게 정리되고 여러 지구에 자연호름식물길이 건설되었으며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새로 많이 건설되고 이미 있던 공장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우리 식의 새 세기 산업혁명을 안아온 CNC화를 놓고서도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2010년 1월 CNC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에게 CNC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알려주면서 CNC화의 첫걸음을 떼도록 한 그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식량이 모자라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시였지만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렀지만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것은 번쩍거리는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워 우리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려는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가 안아온 대응단이였고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힘이 강해야 조국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으실 때마다 CNC화실현을 위하여 헤쳐온 험난한 길들과 마음쓰던 일들이 되새겨져 눈물을 흘리시곤 하였는데 그 눈물은 진정 뜨거운 애국의 눈물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번혁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출발한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사랑이 있을수 없고 헌신이 있을수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서만 참답고 열렬한 사랑이 나올수 있으며 자기를 기꺼이 바치는 헌신도 나올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다고 하시며 언제나 우리 인민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라고 하시며 승리할 조국의 앞날에 대하여 확신하고계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듯이 우리 인민을 믿고 승리할 우리 조국의 앞날을 굳게 믿으시였기에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또한 가장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조국의 운명,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겠다는 숭고한 자각과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시였습니다. 이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장군님께서서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다듬고 선군장정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 오신 애국주의는 그 본질적내용으로 보나 커다란 생활력으로 보나 오직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애국주의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 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있습니다.

(2 면 으 로 계 속)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1 면 에서 계속)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서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라고 노래하시어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날수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였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였습니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 차있었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펼쳐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면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으로 하여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안겨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에 우리 장군님의 후대관이 집약되어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으며 늘 하시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여하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밝은 등대로,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워야 하며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누구나 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을 잘 알고 그것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구호를 웨치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오늘은 어렵더라도 인민의 념원이 활짝 꽃피날 래일을 위하여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애국주의교양에서 나타나고있는 기본결합이 교양사업을 실천활동과 동떨어지게 하는것입니다. 실천과 동떨어진 교양은 의의가 없습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우국은 애국이 아니며 말로 하는 애국은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진실로 애국을 하려면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국심은 자기 부모 처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짙게 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기의 부모 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고향마을과 일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으며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치고 자기 한몸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한다는것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철저히 실현하며 조국의 통성변명을 위한 모든 사업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사

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조국이 있어 당도 정권도 있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도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는것입니다.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입니다. 조국보위 전초선에 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짊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후방의 인민들은 뜨거운 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일단 적들이 달려들 때에는 단호히 맞받아나가 조국보위성전에 애국충정을 바쳐야 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변명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부강변명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운 세대들처럼, 전후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 맨손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운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열은 곧 매국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거기에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담게 되고 건설장에서 흙 한삽을 떠도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게 될것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지 당사업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으로, 인민들의 애국적열의에 의거하는 사업으로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이나 근로단체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마땅히 사람들의 애국심을 키우고 발양시키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말

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며 온 사회에 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너도나도 애국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들과 사회조직들이 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교양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히 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교육사업이 김정일애국주의교양으로 지향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교양을 가정교양, 사회교양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일군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앉아서 나라일을 걱정이나 하는 우국지사가 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어 조국을 받드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들고나가야 할 애국의 구호입니다.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야 하며 언제나 애국투쟁의 선봉에서 인민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함께 등짐도 지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히 일하면 인민들이 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것입니다.

내가 얼마전에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로동당만세를 부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에는 군중대회 같은데서만이 아니라 홀로 외친 섬이나 깊은 산골에 들어가있을 때에도 스스로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심장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은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양양된 애국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개선언설로 애국의 불길을 일으켜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그리고 장군님께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친필서한으로 애국의 불길을 일으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오늘 우리 당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변명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8월 2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과 류홍차이 주조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강석주 내각부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양건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왕자루이부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후진다오총서기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령도집단이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리였다.

그는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며 스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

한 심심한 추모의 뜻을 표시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중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왕자루이 부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제1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고 위대한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중국당과 인

민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이 친히 마련해주시고 키워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조친선의 꽃이 보다 아름답게 피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확

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후진다오총서기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령도집단에 인사를 전하신 다음 왕자루이부장과 따뜻한 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이 준

비하어온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손님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회에는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과 류홍차이 주조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봉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강석주 내각부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영일, 김양건, 문경덕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김병호, 김성남,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참가하였다.

만찬회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쟁로병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진승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은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올해 전승절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게 해주시고 전쟁의 포화속을 뚫고 온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다고 하시며 경축행사에 특별히 초청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솟구치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

하는 가렬한 싸움에서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쟁로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오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쟁로병들이 건강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높이 발휘한 집단주의, 대적적영웅주의 정신을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곳곳이 계승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부인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뜻깊은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은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과정을 보여주는 1부와 전승절경축 환희를 담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였다.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공연무대에는 경음악과 노래 《우리의 7.27》, 경음악 《장군별》, 《결전의 길로》, 《진군 또 진군》, 녀성독창과 방창 《전사의 노래》, 녀성2중창 《나의 한생》, 녀성3중창 《내 삶과 조국》, 경음악 《군기와 함께》, 녀성6중창 《전승의 메아리》, 경음악과 노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경음악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경음악과 노래 《승리자들》, 경음악 《예쁜이》, 녀성3중창 《년병의 비단치녀》, 녀성6중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녀성2중창 《내 마음 별에 담아》, 녀성5중창 《배우자》, 현악4중주 《그 품 떠나 못살아》, 경음악 《우리를 보라》, 녀성6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음악형상과 무대장치, 조명이 조화를 이룬 새롭고 특색있는 공연은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온넛을 틀어잡았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국해방전

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이 안아온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의 위력,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자랑찬 승리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전승렬병식광장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화면에 모셔지고 수령님의 연설이 육성록음으로 울리자 관람자들은 격정에 겨워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박수를 터치였다. 출연자들은 녀성6중창 《중국인민지원군전가》, 중국TV련속극 《마오안잉(모안영)》의 주제가를 통하여 조중 두 나라 군민이 공동의 원수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피흘려 함께 싸운 역사적사실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경음악 《차르다쉬》, 《장미빛을 띤 메뉴에트》, 《싸바의 너왕》, 《모짜르트 40번》, 《집씨의 노래》를 비롯한 세계명곡들도 손색없이 연주하였다.

11명의 연주가들과 6명의 가수들이 높은 예술적재능으로 참신한 음악세계를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선군시대 주체음악예술이 세계의 상상봉에 당당히 올라섰다는것을 가슴벅차게 절감하였다.

전승의 역사적의의를 깊이 새겨주는 공연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빛나게 계승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게 하였다.

녀성6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령도자》의 노래가 울리고 화면에 온 나라 대가정을 돌보시며 꿈같은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지자 격정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난 관람자들의 폭풍같은 박수갈채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본사기자

사 설

절세위인들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

오늘은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고 불변불후의 정력적인 력도로 겨레의 통일애국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 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을 경건히 추억하며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절세위인들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애국의 열의로 가슴 끓이고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제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혁명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리하시으로써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 로작은 내용의 심오성과 과학성, 그 실현방도의 합리성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었다. 로작이 발표된 이후 지난 기간 우리 겨레가 6.15의 가치 높이 민족

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력사적인 사변들과 눈부신 성과들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한 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어있다. 집권한 첫날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과국상태에 몰아넣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범죄적책동은 《정권》의 과멸을 앞두고 더욱 발악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최근에 련이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도발과 《종북세력척결》소동은 분별을 잃은 리명박 《정권》의 말기증상이다. 어부지리를 노린 외세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소동에 더욱 부채질을 해대며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더욱 날뛰고있다.

조성된 사태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경에하는 장군님의 로작을 불멸의 가치로,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7천만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제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정립하여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림장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현강령인 10.4선언은 아버지수령님의 주제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반영한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것을 부정하거나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온갖 시도를 용납치 말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림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림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관계를 과국어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대당의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충강, 전쟁인습책동을 철저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결력의 위협성에 각성을 높이고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에 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통일, 평화변명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가 그의 무한대한 사랑에 울고 웃으며 이렇게 웨치고 있는것이다.

그이는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인민의 령도자이다. 그래서 온 나라 인민은 단번에 외와 되어 통하고 심장이 통하게 되었다. 그이를 모신 조국의 미래는 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창창하다, 인민은 그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따른다.

지난 4월 평양을 다녀간 김 에두아르트 니콜라예비치 제로동토는 자기의 조국방문 소감을 이렇게 터놓았다.

《지금 나의 조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짧은 지도자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분의 탁월한 령도, 한없는 친화력, 자애로운 미소는 그대로 찬란한 조선의 미래이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가 계시는 인민의 나라로 빛나는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베 루 단 체 성 명 발 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베 루위원회가 7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그이의 로작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과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밝은 전망을 안겨준 위대한 강령이다.

미제와 그 주구인 남조선의 리명박괴뢰도당이 반공화국, 반통일정책에 집요하게 매어달리며 아무리 발악해도 위대한 통일강령을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고려민주혁명방공화국을 창립하려는 조선인민의 념원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빛나게 계승해나가시기에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베루의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로작연구토론회 스위스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15돐에 즈음하여 7월 22일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를 비롯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칭송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혁명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리해주시시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

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해설하였다.

그들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조국통일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미제와 리명박괴뢰도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연대성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부럽다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7월 21일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니가투 다그나체우는 김정은각각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소식은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각각께서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화같은 총정의 분출이다.

나는 얼마전 조선을 방문하면서 천만군민을 이끄시는 김정은각각하의 비범한 령도력과 그이의 두리에 더욱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였다.

김정은각각하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모시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은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다.

7월 23일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살루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각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승리로 이끄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를 굳건히 이어가시면서 나라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지시어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계신다.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적자질을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께서는 탁월한 평균술로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대적도 단때에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다.

김정은최고령도자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서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련이어 우리는 승리의 소식들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 금메달 쟁취, 올림픽 및 세계 신기록 수립—

공화국의 미려한 체육선수들이 영국 런던에서 개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련이어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첫 금메달을 안아온 안금애선수

너자유술 52kg급경기에 출전한 안금애선수는 예선과 준준결승, 준결승경기들에서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선수들을 한판 등으로 보기 좋게 물리쳤다. 안금애선수는 구바선수와 결승경기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드세한 공격을 들이대어 상대방울을 누르고 마침내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첫 금메달을 안아올렸다.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높이 오르는 람홍색공화국을 바라보며 안금애선수는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올림픽신기록을 세운 엄운철선수

올림픽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엄운철선수는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추켜올리기경기에서 168kg을 성공시킴으로써 올림픽신기록을 세우고 도합 293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쟁취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은 그의 경기성공과 더불어 세계력기계를 뒤흔든 기적적

로 평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포럼까지 신랑망은 이렇게 썼다.

《엄운철선수가 올림픽신기록에 도전한다는것이 알려지자 관중들의 눈길은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심에 넘쳐 168kg을 안전하게 들어올렸다.》

력기경기에서 B조에 속한 선수가 금메달을 쟁취한것은 올림픽력사에 없는 일이다. 이번엔 조선선수는 B조에 속하여 두각을 나타내면서 《검은말》이 되어 A조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쟁취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력기에서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들어올리는것은 국한으로 인정되고있다.》

김은국선수, 세계를 들어올린다

승리의 신심에 넘쳐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 출전한 김은국선수는 선군조국의 담력과 배짱,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기술로 순간제기와 빠른 추기, 재치있는 련결동작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들어올리기에서 153kg, 추켜올리기에서 174kg을 들어올려 종합 327kg을 성공시켰다. 끌어올리기성적은 지난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보다 10kg, 이번엔 2등을 한 선수보다 13kg이나 더 많은것이다.

이로써 김은국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고 올림픽신기록을, 종합

성적에서 단연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자랑을 떨치었다.

관중들은 완강한 투지와 폭발적인 힘으로 멋있는 경기장면을 펼쳐보인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김은국선수는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선수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가장 높은 경기성적을 거둘것을 바라고계신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

세계력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령정심수가 남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령정심수가 제1위를 쟁취

하였다.

그는 순간제기와 단번추기에 의한 정확한 받기로 끌어올리기에서 115kg, 추켜올리기에서 146kg을 들어올려 종합 261kg을 성공시켰다.

시상대에 오른 령정심수에게 영예의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계양되는 람홍색공화국을 바라보며 령정심수에게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승리의 보고를 울리었다.

세계력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선군조선의 장한 딸인 령정심수가 자랑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

였다.

조선의 령정심이 런던에서 진행되고있는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제1위를 쟁취하였다.

그는 추켜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부터 142kg을 성공시켜 앞서나갔다.

마지막들기에서 그는 다른 나라 선수들을 훨씬 능가하는 146kg을 들어올려 종합 261kg을 기록하였다.

세계 각국의 통신, 신문, 방송들은 예상을 뒤집고 조선이 금메달획득에서 앞선 순위를 차지하고있는데 대해 찬양하면서 보도열을 올리고있다.

로이터통신, BBC방송을 비롯한 주최국 언론기관들과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 많은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은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고있는 조선선수들》, 《남자력기에서 중국을 기절케 한 조선》을 비롯한 제목으로 공화국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상세히 소개하고있다.

특히 조선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맞닥뜨리는 대상들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고있는 요인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총정과 신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여자력기 48kg급경기에서 람홍화선수는 동메달을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 안금애선수

↑ 엄운철선수

↑ 김은국선수

→ 령정심선수

통일애국의 길에서 겨레와 함께 맞는 창간 40년

— 《 통일 신 보 》 창 간 4 0 돛 을 맞 으 며 —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로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환희가 차넘치던 1972년 8월 6일.

은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크나큰 기대속에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룩해보겠다는 리없는 일념에서, 아름다운 내 조국에 통일의 새봄을 마련할 선구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가 자기의 첫 고고성을 올렸습니다.
《불편부당, 자주적평화통일 실현, 민족대의고수를 좌우명으로 하는 무소속애국인사들의 대변지인 《통일신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8월 6일연설 한문을 계기로 통일운동의 새로운 역사적전환의 격동기에 민족지상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보탬해보리라라는 큰 뜻을 안고 여기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는다.》
창간사의 이 격동적인 구절의

메아리가 아직도 울려오는것만 같은데 벌써 40년 세월이 흘렀다. 겨레의 통일열원을 가슴에 안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내번이나 바뀌는 기나긴 나날 평양과 서울, 판문점에서, 백두산과 금강산, 부산과 대구에서 애국의 붓대, 정의의 필봉을 역세게 틀어잡고 민족애에, 조국애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온 《통일신보》의 기자, 편집원들, 베이징과 선양, 모스크바와 하마스크, 도쿄와 오사카 등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서나 《통일신보》는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이끈 정신적 힘의 원천이었다.
창간 40년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통일신보》의 기자, 편집원들은 본지가 걸어온 애국의 길, 통일의 길,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본다.

언젠가 조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교포교수는 본사기자를 만나 자기가 《통일신보》를 애독하게 된것은 정준택선생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쓴 기사가 《우리 수령님은 인테리들의 은혜로운 태양이십니다》를 읽고 난 후부터라고 하면서 《과시김일성주석님은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라고 감동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통일신보》의 열성독자의 한사람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지리지부협회 회장 황진생동포는 본사앞으로 보내온 편지에서 《통일신보편집국 선생들의 세심한 노력으로 하여 정경애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수령님탄생 100돛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조국인민들이 힘찬 투쟁을 벌려 조국방방곡곡에서 일대 비약과 새 기적을 이룩한 눈부신 소식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특기왕소식들이 집혔을 때 조선의 위인을 높이 모신 해외공민된 위인감으로 가슴 벅차올랐습니다.》라고 썼다.
본지는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아래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밝은 현실을 소개하는 여러가지 특종사들과 함께 자주, 민주, 통일을 절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발을 들고 광화문광장을 누비는 남북인민들의 목소리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합쳐 지면으로 자주를 웨치며 통일애국의 필봉을 달리던 그 나날들을 정녕 잊을수 없다.
그 나날 《통일신보》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게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로작들과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전방공화국창립방안,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되었으며 통일을 위한 길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는 남녘의 《민족21》잡지와 기사교류를 활발히 벌려 통일언론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왔다.
민족과 통일에 리로운것은 작극 찬양하고 그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본지의 분명한 립장과 자세이다.
본지는 남조선당국의 외세의존적이며 반북대결적인 책동을 규탄하는 사리정연한 논문을 펴냈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정세를 대결과 전쟁으로 역전시키려는 반통일세력의 중도에 언제나 차가운 언론의 포화를 들썩였다.
《무엇을 위한 (원칙)이고 (대북정책)인가》,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인도주의)간판밑에 감행되는 대결소동》, 《민족의 평화지평에 대한 도전》, 《최대의 방사능위협지대는 남조선이다》 등의 글들은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 반통일적인 대결책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철의권리와 과학적사실자료로 단죄규탄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해외독자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역적패당의 반인륜적범죄, 특대형국가정체로행위에 대한 날카로운 고소장인 동시에 존엄한 판결문이었다.
* *
호르는 물과 같이 세월은 흐르고 흘러 본지의 창간호에 심장의 퍼를 쏟아부은 로기자들이 이제 는 우리곁에 없다.
통일, 애오라지 이 민족사적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로세대들의 뒤를 이어 오늘은 세세대 기자, 편집원들이 애국의 필봉, 정의의 붓대를 이어받았다.
발간 1000호를 맞으며 본지가 《통일년만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사실을 실어 1995년 《통일회년》으로 만들자고 호소한지가 어제같은데 그때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나 2000호발간이 된 은 오늘까지도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의 어느 집안이나 개별적 인사도 민족애에, 후세애에 덧붙 할수 없다.
《통일신보》라는 제호가 말해 주듯이 본지의 존재의미는 조국통일의 실현과 일치한다.
본지창간 50주년이 되는 2022년에 또다시 분렬의 고통과 몹이론 통일의 안타까움을 담은 《통일신보》의 창간기념일이 나가서는 안될것이다.
그것은 역사애에, 민족애에, 후대들에게 우리모두가 죄를 짓는 행위라고 본다.
은 민족이 바라고바라는 조국통일의 그날, 통일의 환희와 회의를 은 세상에 뜻깊이 전하는 《통일신보》의 뜻깊은 호가 편집되도록 하기 위해 본지의 기자, 편집원들은 해외의 독자여러분과 함께 통일애국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민족의 밝은 미래를 격관하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온 겨레를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심점으로 받들어모셨으며 오늘은 또 한번의 백두산위인신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통일의 구심점으로 우러러 따르고있다.
본지는 민족의 위대성,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련사의 진리를 겨레와 함께 매일매시각 심장으로 느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시고 통일강성대국의 미래를 안아오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선군영도소식을 빠짐없이 보도하여 독자들속에서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민족의 행운》, 《위대한 포용력》, 《김정일시대》, 《위인

의 음성》, 《만고위인의 이름 밤, 사흘낮》, 《위인과 애족》, 《인민위해 바치신 거룩한 한평생》, 《위대한 명장을 모신 민족의 궁지》를 비롯한 많은 글들은 민족이 맞은 절세의 위인들의 사상과 령도, 덕망의 위대성을 생동한 사실적자료로 깊이 있게 론증함으로써 독자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나날 본지는 김구선생, 김구식선생, 홍명희선생, 리순형선생, 최동오선생, 문익환목사, 최덕신선생, 정주영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과 오랜 인테리들, 기업가, 종교인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소개하는 수많은 기사들을 실어 독자여러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으리라 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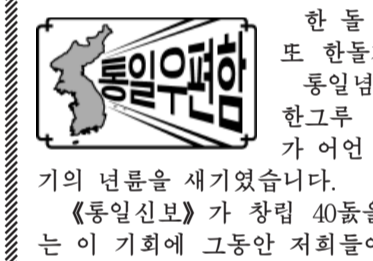
한글이 오고가는 가슴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디다. 그러나 보진 우여곡절속에서도 겨레의 자주통일진군은 줄기차게 이어져왔으며 그속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가슴에 안아오고, 6.15시대의 화해와 감격에 울고웃던 우리 겨레입니다. 6.15시대가 더 활기있게 전진하

우려 민족의 분렬의 역사는 어 느덧 70년을 가까이 하고있다. 반세기이 훨씬 넘는 이 기나긴 나날속에 민족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더 커지고있다. 조국통일이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오늘날 통일운동을 떠나 참다운 애국과 정의, 진정한 언론이 있을수 없다고 우리는 간주하고있다.
지난 40년세월 사상과 리념, 계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지의 기자, 편집원들이 바친 지혜와 열정과 맘이 환호환호의 시문들에 그대로 어리여있다.
때로는 남녘의 항쟁용사들과 함께 자주, 민주, 통일을 절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발을 들고 광화문광장을 누비는 남북인민들의 목소리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합쳐 지면으로 자주를 웨치며 통일애국의 필봉을 달리던 그 나날들을 정녕 잊을수 없다.
그 나날 《통일신보》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게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로작들과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전방공화국창립방안,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한 돌기, 또 한돌기... 통일년만의 한그루 나무가 어언 40돌기의 년들을 새기었습니다. 《통일신보》가 창립 40돛을 맞은 이 기회에 그동안 저희들이 만든 미숙한 글과 사진들을 소중히 모아주신 독자여러분께 우리 기자, 편집원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합니다.
《통일신보》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산아입니다.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창간의 첫 제호를 내보낸 때로부터 지난 40년간 《통일신보》는 오로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자기의 지면을 아낌없이 바쳐왔습니다.
그길에는 북과 남이 얼싸안는 화해의 감동깊은 순간들도 있었고 총

7.4공동성명의 발표를 통일이 오는 소리로 듣고 감격하고 환호했던 그때 젊은이들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리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민족분렬의 비극을 지속시킬수가 없습니다. 갈라진 겨레가 통일을 목놓아부르고 역사가 통일을 웨치고있습니다.

한분의 절세의 위인신 경애하는 김정 원수님을 계시니 다. 그이께서는 온 세계가 지켜보는 태양절경속 열병식장에서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통일애국의 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시였습니다.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분쇄하고 제2의 6.15시대를 기어이 열어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통일지향이고 굳센 의지입니다.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는 앞으로 독자들과 뜻과 호흡을 맞추어가며 통일의 봄소식을 지면에 담을 환희의 그날을 앞당겨주기 위하여 통일언론활동을 더욱 즐기차게 벌려나가겠습니다.
《통일신보》 편집국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통일의 봄소식을 하루빨리

여 기쁨속에 창립 40돛을 맞이하려던 우리들이었는데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외세의 악랄한 민족통일방해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민족내부의 대결세력의 책동으로 6.15가 진통을 겪고 북남관계는 딱 막히다 못해 불과 불이 오가는 사발한 관계로 되었습니다. 민족의 분렬도 창장 70년을 가까이 해오고있습니다.

우려 조신민족은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하나, 둘이 되면 못 살 하나입니다. 통일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생존도, 평화변명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일은 최대의 애국의 명제입니다. 누구나 통일의 주인이 되어 통일성업을 위해 떨쳐나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신 경애하는 김정 원수님을 계시니 다. 그이께서는 온 세계가 지켜보는 태양절경속 열병식장에서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통일애국의 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시였습니다.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분쇄하고 제2의 6.15시대를 기어이 열어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통일지향이고 굳센 의지입니다.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는 앞으로 독자들과 뜻과 호흡을 맞추어가며 통일의 봄소식을 지면에 담을 환희의 그날을 앞당겨주기 위하여 통일언론활동을 더욱 즐기차게 벌려나가겠습니다.
《통일신보》 편집국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통일신보》를 펼쳐들 때마다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가 창간 40돛을 맞게 되어 통일부문에서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감격과 기쁨을 누릴것 없다.
《통일신보》하면 국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특히 통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통일신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구독해오시고있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언제나 제언면저 순에 펼쳐들게 되는것이 순이든 《통일신보》이다.
민족의 통일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통일신보》는 지난 40년간 민족의 화합과 통일성업 실현을 도모하는 본연의 사명감에 맞게 해외의 각계층 민족성원모두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민족자주와 대단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지난 기간 《통일신보》의 열성독자의 한사람인 나도 신문을 펼쳐들 때마다 통일애국의 마음을 더욱 다지고 자신의 결의를 담은 글들 지면에 두고두고 하였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통일위업이 엄중한 시련을 겪고있는 지금 《통일신보》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 크다고 본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에서도 《통일신보》와 애국의 숨결을 맞추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리로운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통일애국의 붓대를 틀어쥐고 열과 성의를 다 바쳐가는 《통일신보》 편집집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부터의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홍성철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동포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

마흔해된 결고 짙지 않다. 40년을 헤아리는 세월 《통일신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림없이 고국과 우리 동포사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징검돌이 되고 다리가 되어 주었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창간의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본연의 사명을 다해온 《통일신보》다. 언제나 그날처럼 두리번에 앉은 은 식솔이 밭을 갈다 말고 갈밭도런처럼 창간사로부터 《우리 민족의 명승-평양의 련평정》, 《민족의 자랑-우리 나라에서 만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비롯해 창간호의 글들을 훑어보면서 열독하던 일이 어제처럼 눈앞에 방불하다.
그때로부터 《통일신보》는 동포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정일봉고향집뜨락가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비롯한 글들에서 필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긍지를 마음껏 노래하였으며 몸은 비록 지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할 갈을 걸어들어 련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머나먼 해외에서 본지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애감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우리에게서 그 무슨 《변화》를 기대하는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망상이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피로대담이 우리의 《정책변화》와 《개혁, 개방》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7월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 천만국민은 우리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새로운 신심과 활력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며 우뚝한 기상과 약동하는 기백으로 경이적인 사변들을 편이 편치며 우리의 격동적인 현실은 온 세계를 크게 경탄시키고있다.

이에 걸맞은 피로대담은 최근 그 무슨 《대북》전문가나 워너비 하는자들을 내세워 눈부시게 말장난하는 우리의 자랑찬 현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정책

변화의 조직》이니, 《개혁, 개방의 시도》니 하고 떠들여대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극도의 무지와 불순한 흥심을 드러낸 가스로운 망상이다.

그 무슨 《정책변화의 조직》이니 뭐니 하는것에 대해 말한다면 지금 우리 공화국의 모든 정책은 철두철미 절세의 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어떤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어떤 후호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혁명의 매 단계마다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는것을 놓고 《정책변화》로 보고 이전 시대와 결별한것처럼 떠드는것이야말로 귀머거리 재 마음에 있는 소리하는 격의 몰상식의 극치이다.

《개혁, 개방의 시도》니 뭐니 하는것에 대해 말한다면 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어느 한 분야도 개혁하지 않았 것이

없으며 나라의 문물 달아맨 적도 없다.

우리 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에 문을 열어놓고있으며 북남사이에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으로 교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오르며 자물쇠를 꽂고 잠그어놓고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와 고립압살책동에 미쳐달뛰고있다는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피로대담을 비롯한 적대세력이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은 저들의 썩어빠진 체제를 강요하는 《개혁, 개방》나발을 불어대느라고 기진맥진한 나머지 최근 우리에게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가 아닌가 하는 환각에 사로잡혀 그토록 제기에 고아대고있는것이다.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이러한 백치들이 《대북》전문가들일진대 그들의

영리본색에 솔깃하여 어리석은 망상에 매달리고있는 미국과 피로대담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가.

대결에 미쳐면 눈앞의 현실도 청명파나처럼 제대로 볼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첨단을 돌파하며 인민들이 현대문명과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해나가는것을 그 어떤 다른 불순한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주의는 영인불변한 우리 혁명의 지도적지침이고 백승의 기치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것은 우리 천만국민의 억척의 신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자기 힘으로 이 땅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기어 이 띠며세울것이다.

《정책변화》니, 《개혁, 개방》이니 하는것을 기대하는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리라고 미련한 개공에 불과하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첨단을 돌파하며 인민들이 현대문명과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해나가는것을 그 어떤 다른 불순한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주의는 영인불변한 우리 혁명의 지도적지침이고 백승의 기치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것은 우리 천만국민의 억척의 신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자기 힘으로 이 땅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기어 이 띠며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반역자에게는 수칙과 줄임만이

미련한 개도 하루를 먹여살려준 은인은 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세상에는 미련한 개보다 못한자들도 있다.

자기를 낚아주고 키우준 고마운 품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탈북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북로되나와 같이 공화국을 배반하고 남으로 도주한 《탈북자》들이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지지와 보호속에 반복도락단체들을 꾸며가지고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을 벌리다 못해 이번엔 드러난 특대형사건과 같이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모해하려는 파괴 암해책동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

더럽혀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몇푼의 돈에 유혹되어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해치려는 인간의 체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간은 작품들의 특대형과피암해책동에 지금 공화국의 전체 군대와 인민은 분노와 중요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반역 《정권》의 특대형반공화국도발소동에 격앙될대로 격앙되어있다.

여기에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끼여들어 북의 최고존엄을 어찌 보냈다고 하니 더욱더 참을수 없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그러나 민족반역자들의 말로는 언젠나 비참하다.

남조선의 출판언론기관들의 자료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지금 자기의 보금자리를 배반하고 남으로 간 사람들은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고있다. 공화국의 체제하에서 살았다고 하여, 생활상 습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여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항상 감시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앞날에 대한 비판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가하면 탈남하여 타국에서 정처없이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탈북자》들의 자살건수는 남조선주민들의 평균 자살수치

를 몇배로 톡가하며 탈남한 《탈북자》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극히 축소된 자료로서 실제 《탈북자》들의 생활수준은 비참하기 지경이다.

이로부터 지금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기관들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얻어준다느니, 살길을 열어준다느니 하는 갖은 감언리설로 그들을 꼬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것처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던자도 따지고보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일확천금의 계몽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모략기관들의 달콤한 미끼에 걸려서 습성이 반역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민족의 자주권과 생명보다 더 귀중한 최고존엄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항상 각성되어있는 공화국이다.

어둠을 리용하여 쫓아다질 하려 해도 빛의 세기를 알수 없는 공화국의 탐조등알에서는 그가 누구라 해도 피해갈수 없다.

몇푼의 돈에 침을 흘리며 짐승보다 못한 구차한 운명을 유지해보겠다고 《동까모》라는 흉악한 테러조직까지 무어가지고 반복도락암해책동에 미쳐달뛰는 반역자들에게 차레질것은 수칙과 줄임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회고록을 읽어야 세상이 보인다

회고록을 읽어야 세상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이 기소리유로 인해 《종북활동》이라는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임도록 권고했다고 하는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은 포악한 일제강점시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을 들고 만주땅에서 투쟁토록하면서 영웅적인 항일대업을 벌이신 주석의 혁명활동내용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감동깊은 책이다. 사상과 민족의 존엄을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일치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

할때 대한 회고록의 주요사상은 조국통일을 위해 온 겨레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민족 대단결사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회고록은 책이나 온어리 남조선은 물론 세계적 범위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한교수도 《세기(디블러)》를 읽지 않고 현대사를 말하지 말라, 통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에 저들같이 오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북활동》을 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승어가 뛰면 땅도도 번다고 사전에도 없는 《종북》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재검진을 위한 《북풍》모략소동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을 비롯하여 남측보수세력에게 아첨이나 하려는듯이 《공정성》을 떠들던 검찰까지 두말걸

인간이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길이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가를 일깨워줄것이라고 소리높이 외쳤다.

이렇게 누구나 접하면 맥 맥히 굽이치는 민족애와 철의 론리에 감동되고 감탄하여 한번 보면 또 보고싶어지는 회고록을, 인생의 바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에게 읽도록 권고한것이 과연 죄라고 할수 있는가.

선생이 학생들에게 옳은것을 옳다고 말해주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행사이고 정의와 진실을 가르쳐야 할

스승의 옳바른 자세이다.

오히려 그것을 범죄시하며 탄압하는것이야말로 동족이하는 일은 없었고 그 나쁘게 보고 말하는 폐쇄적인 《대북》관념, 동족대결관념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이고 대결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아직도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주의 암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사람들이 북을 알리면 누구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어야 한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통일에 참담게 이바지하지 않으면 사상이 정결을 초월하여 누구나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본사기자 최명재

상전과 주구의 위험한 공보결탁

얼마전 미국방부 부장관 카터가 남조선을 행각하였다. 카터는 행각기간 남조선의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우두머리들과 회담을 가지고 《한미동맹강화》와 《대북정책공조》 등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상전과 주구사이에서 벌어진 또 한차례의 위험한 반공화국대결음모, 북침도발모의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리명박일당이 떠드는 《한미동맹강화》는 곧 《북침전쟁동맹강화》이다.

오늘 아시아태평양양자배정책을 찾아가는 대외안보전략으로 내세운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한미동맹강화》를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한미동맹강화》를 미끼로 남조선보수세력을 전쟁돌격대로 내몰아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까지 손아귀에 넣자는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인것이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외교부장관회담에서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당이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남조선형미사일방어체계》의 년내구축 등 공화국을 반대하는 긴밀한 군사적공조를 모의한 사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2사단을 《한미연합부대》로 개편하는것과 동시에 한강북쪽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있는것 등이 다 이러한 공작음모로부터 진행되는것이다.

결국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당이 떠드는 《한미동맹강화》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 침략을 노린 《전쟁동맹강화》인것이다.

그 무슨 《대북정책공조》라는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당의 《대북정책》이

라는것이 공화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봉쇄를 강화하고 이른바 《급변사태》를 조작하여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는것이라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최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노린 특대형국가정치대결행위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북침도발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미국과 역적패당의 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번에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대북정책공조》라는 명목하에 또 하나의 반공화국도발음모를 꾸미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당은 카터의 남조선행각이 《취일인사차 아태지역 여러 나라를 둘러보는 일정에서 마지막 방문》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약화시켜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까마귀 모여앉으면 뿔 잡아먹을 생각밖에 없다고 대조선안살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미국이나 그에 아부추종하여 분별없이 날뛰는 리명박보수세당이 마주앉아 하는것이란 조선반도에 전쟁을 불어오기 위한 위험천만한 음모밖에는 없다.

현실은 상전과 주구사이의 군사적결탁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보결탁으로 일어날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도리어 그것은 자멸만을 제촉할뿐이다.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당은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박철남

대결정책도 《사이후이》냐?

《사이후이》란 말은 일본말같기도 하다. 난곳이 일본 오사카이고 뼈속까지 친일분자인 리명박의 입에서 충분히 나올법한 소리이기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외래어같은 이 말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사이후이판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두는 뜻으로 살아있는 한 일

인 관계가 4년 수개월이나 지속되고있다. 6.15시대와 더불어 그토록 환희에 넘치고 활기에 찼던 북과 남사이의 감도는것은 서슬푸른 대결과 일촉즉발의 전쟁위협감이다. 역적패당에 대한 7천만개의 분노와 남조선 각계의 규탄의 목소리는 하늘에 닿고있다.

집권후 리명박은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 000》과 《상생, 공영》을 떠들며 공화국이 저들에게 굴아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원칙있는 《대북정책》》도 고집해보고 《기다리는 전략》이라는것도 써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잔꾀는 어디에도 통하지 않았다. 공화국은 더욱 강성해졌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의 속이 뒤뜰리대로 뒤뜰러갔다.

남조선집권자의 흥심은 남은 얼마간의 집권기간 북남관계에서도 대결정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리명박은 최근 미국상전과 공모하여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테러사건을 음모하다 적발폭로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과》농음을 벌리기 불과 며칠전에도 《북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느

니, 《더 큰 《대한민국》》이니 하며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정신병자의 히스테리적발작을 부렸다.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북남관계파국의 장본인인 리명박은 《사과》니, 《사이후이》니 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과를 걸어안고 지체없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권모술수가 아니라 집권자의 퇴진이다.

《기다리는 전략》끝에 산송장이 되어버린 리명박을 기다리는것은 력사와 겨레의 최후의 심판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인사의 량심과 인권을 짓밟는 반통일 〈정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구축된 범민련관계자에 대한 파쇼당국의 인권탄압행위를 규탄하였다.

범민련은 7월 31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서 《범민련 통일인사 로수회, 원진옥서신, 절건금지 해제, 외래전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조의방북후 귀환하다 공안당국에 의해 긴급체포된 로수회부의장과 당일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에 의

해 구금된 원진옥사무처장이 가족과의 면회조차 거절당하고있고 원진옥사무처장의 경우 감상선임중세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나 허자도 범민련 무부 고검당국이 허용치 않고있다.》고 폭로했다.

단체는 《공안당국과 교정국들은 두 관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서신과 접견을 허용하고 원진옥 사무처장에게 압정밀진단을 받출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홍수 범민련 의장전한대행 등 발언자들은 《리명박(정권) 들어 공안당국의 행태는 박정희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갔다.》고 강조하고 《로수회부의장의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방북은 공개된 애국적소행으로 (정부)가 오히려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며 정당정신을 부어했다.

발언자들은 《남북긴장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루려면 노력해온 로수회부의장과 원진옥 사무처장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서신접견과 정밀진단,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정권)인 리명박 (정부)를 심판하라.》고 결의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독립군을 붙은한 조선인, 불명선인이라 했다고 친일파들은 (친황제파 만세)를 부르며 내선일체에 부화피동했으며 미국을 상정수로 모시는 리승만은 애국자와 민주인사를 빨갱이라 했다.》며 《리명박 (정권)도 통일인사를 빨갱이이니, (종북주의자)니 하는 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잡아가지고 통일인사의 량심과 인권을 짓밟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참가자들은 로수회부의장과 원진옥사무처장에게 《죄가 있다면 《한미동맹》에 눈이 멀어 대결과 전쟁에 날뛰는 (정권)을 반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무처장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서신접견과 정밀진단,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정권)인 리명박 (정부)를 심판하라.》고 결의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독립군을 붙은한 조선인, 불명선인이라 했다고 친일파들은 (친황제파 만세)를 부르며 내선일체에 부화피동했으며 미국을 상정수로 모시는 리승만은 애국자와 민주인사를 빨갱이라 했다.》며 《리명박 (정권)도 통일인사를 빨갱이이니, (종북주의자)니 하는 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잡아가지고 통일인사의 량심과 인권을 짓밟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참가자들은 로수회부의장과 원진옥사무처장에게 《죄가 있다면 《한미동맹》에 눈이 멀어 대결과 전쟁에 날뛰는 (정권)을 반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월 31일 일본당국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저들의 령도라고 쪼아박은 《2012년 방위백서》라는것을 또다시 발표하였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강도적인 《독도령유권》주장은 지금 은 민족의 치욕은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과렴치한 주장에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이 아무런 항의나 근본대책도 명시하지 않은 허울쫄 성명서로 대처하고있는것이 다. 이번엔 남조선의 외교 통상부가 내보낸 성명서라는것을 보면 한두개의 글자나 바꾸었을뿐 내용이나 형식이 있어서 지난 시기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리명박일당의 굴욕적인 처사를 두고 《3년째 거의 베껴쓰다싶이한듯 판박이다.》, 《성명베끼기를 반복하는 무력하고 한심한 처사는 일본도 우롱하고 웃을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곧 《일본정부의 오만에 또다른 용기를 주는 굴종행위》라고 개탄하고있다.

결국 우연한 소리가 아니라 알려진바와 같이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그 무슨 《과거를 묻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니, 《사과와 화,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싶지 않은 관계》니 뭐니 하며 대일굴욕외교만 일삼았다. 뿐만아니라 《독도나 역사교과서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회맹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

가 하는것은 올해 초 국제적인 폭로전문사이트 위클리크가 밝힌 자료내용을 보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에 의하면 2008년 7월 당시 일본총리 후쿠다가 리명박에게 일본의 중학교학습지독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쓸수 없다.》고 말하자 그에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비굴하게도 《지금은 곤난하니 기다려달라.》고 구걸하였다고 한다.

수천년동안 대대로 전해오고 지켜온 우리 민족의 령토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포괄적인 강탈행위에 항변 한마디 없이 아무굴종하는 리명박의 친일사대매국행위야말로 《울사오적》도 낫을 붙힐 친일매국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제땅이라 우기며 해가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늘어나고있는것은 그를 묶어, 조장해주고 비호해주는 리명박일당의 친일사대매국행위의 필연적 후과이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독도뿐아니

라 전조선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한 일본의 제침야망에 걸맞이로, 최후대로 나서고 있는것이다.

은 민족의 중요와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농음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러한 책동은 독도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채질해주고 《자위대》에 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주려는 후안무치한 매국책동이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 민족의 피로 얼룩진 일장기가 심화되면 또다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발자국이 찍히게 될것이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비호해주고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겨레의 존엄과 리익도 송두리채 팔아넘기는 리명박과 같은 특등친일사대매국파를 그대로 둔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매국배족을 일삼는 리명박적력무리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민심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공약

지금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민행복 5대공약》, 《중소기업보호》, 《가계부채해결》, 《경제민주화 실현》 등 수많은 경제《공약》들을 람발하면서 저들이 재집권하면 마치도 경제위기가 해소되고 심각한 가계부채문제도 해결되며 국민이 행복해질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이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때 《경제살리기》의 미명하에 내놓았던 갖가지 경제《공약》들이 휴지장오로 전락된 현실은 지금 《새누리당》이 광고하고있는 경제《공약》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1

지금으로부터 5년전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패당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무슨 《경제살리기》와 《고도성장》을 떠들며 갖가지 미사여구로 포장된 《정책공약집》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당시 보수패당은 《공약집》에 들어있는 《92가지의 약속》들이 실행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잘살게 되고 남조선이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대렬에 들어설수 있다고 요란스레 선전하였다. (《연합뉴스》 2007. 11. 26. 《이데일리안》 2007. 12. 7)

이것은 반신불수의 기형적인 경제체제하에서 극도의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려온 남조선인민들을 쉽게 현혹시켰으며 결과 보수패당은 《대통령선거》에서 적지 않은 표를 끌어모아 10년만에 다시 《정권》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역도는 청와대에 들고앉자마자 뻔뻔스럽게도 《공약》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적이기때문에 그대로 리행하는것이 아니라고 체치면서 《공약위집기》, 《말바꾸기》에 달라붙었다. (《월간조선》 2009. 12. 1)

《핵심공약》으로 내들었던 집권기간 년평균 7%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4만US\$, 7대 선진경제대국진입목표를 달성한다는 《747공약》에 대해 역적패당은 《당장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10년간 평균 7% 성장하자는것》이라고 하였다가 후에는 《7%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질로 만든다는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마저도 2010년에는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렸다. (《해탈드생생뉴스》 2008. 1. 8. 《매일경제》 2008. 6. 23. 《조선일보》 2010. 2. 18)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역도의 《747공약》을 가리켜 《철수 있는 사기는 다 친공약》이라고 조소하였겠는가. (《오마이뉴스》 2009. 9. 24. 《프레시안》 2011. 9. 25)

결국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면서 《고도성장달성》을 떠들며 애던 리명박역도의 집권 4년간 년평균경제성장률은 불과 3.1%로서 《국민의 정부》 5%, 《참여정부》 4.3% 등 역대 《정부》들에 비해 가장 낮은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한겨레》 2012. 2. 19)

보수패당의 《공약》 위집기는 《반값등록금》문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패들은 비싼 등록금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를 리

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어주겠다고 《공약》해나섰다.

그러나 집권이후에는 하루빨리 《반값등록금공약》을 실행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역도자제가 《그런 공약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었는가 하면 《새누리당》패들은 《딱 절반으로 등록금을 줄인다는게 아니라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라느니,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언젠가 리행할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느니,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것》이라느니 하는 말장난만을 늘어놓았다. (《오마이뉴스》 2009. 5.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는 지난해초 신년좌담회에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해 이야기한것뿐이고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았기때문에 취소하겠다고 발언하여 컸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KBS》 2011. 2. 1. 《경향신문》 2011. 2. 1. 《코이넷뉴스》 2011. 2. 2)

역도패당은 《동남권신공항건설공약》도 집권이후 그 실행을 질질 미루어오다가 지난해 3월말에는 경제성이 없기때문에 《동남권신공항건설》을 백지화한다 고 서슴없이 선포하였다. (《해탈드생생뉴스》 2011. 3. 30. 《SBS》 2011. 3. 31)

보수패당의 거짓 《공약》은 이렇지 않다.

리명박역도패당은 저들이 집권하면 해마다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해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지난 4년간 남조선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수는 년평균 20만개 미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일용직과 같은 일자리아닌 일자리였다. 특히 2007년 7.2%였던 청년공식실업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에는 최고 9.3%까지 치솟았다. (《한국일보》 2012. 6. 18. 《경향

신문》 2012. 2. 23. 《아시아경제》 2011. 5. 30)

보수패당의 《서민생활안정공약》도 레외로 될수 없다.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서민정부》가 되겠다는니,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니 뉘나 하면서 마치 《서민생활》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올해 남조선주민 1인당 세무부담액은 5 000US\$로서 2007년에 비해 26.5% 늘어나고 지난 5월말현재 주요생활필수품 가격은 1년사이에만도 무려 8~60%나 뛰어들었다. 그런데 하던 《정부》가 앞선해준 《서민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주민들이 39%에 달하는 리자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역도패당의 집권기간 서민대중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다. (《조선일보》 2012. 5. 24. 《서울경제》 2011. 6. 22. 《한국경제》 2012. 6. 6)

리명박역도의 《주가 3 000공약》은 아직도 세간의 웃음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를 며칠 앞두고 역도는 증권거래소를 찾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년안에 주가가 3 000를 돌파하고 임기말에는 5 000까지 상승될것이라고 회피해 늘어났다. 그러나 이젠 《정권》시기 2 000개 미만으로 올라갔던 종합주가지수가 역도가 취임한지 1년도 못되어 900개선으로 폭락하여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고 임기가 거의 끝

행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역대통치패들과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리명박 《정권》처럼 민생은 안중에 없이 일반서민들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한판돈을 저금한 돈까지 《대통령》과 아들, 딸, 사위, 사돈, 처사촌, 동서들, 측근들이 너도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펼쳐나 경쟁식으로 권력을 약용하여 벌어들이고 랑징한 그런 《정권》은 일찌기 없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리명박 《정권》은 도적질로 완벽한 《정권》, 부정부패와 반역으로 완벽한 《정권》, 후안무치와 뻔뻔스러움으로 완성된 《정권》, 첩보와 물림치, 표리부동으로 완성된 《정권》으로 남조선인민들의 규탄을 받고있다.

리영진

나게 된 현재까지도 2007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있다. (《프레시안》 2008. 10. 27. 《연합뉴스》 2012. 7. 26)

예산지출을 200억US\$ 줄이고 집권기간 《균형재정》을 유지하며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던 보수패당의 《공약》도 공념들이 되고말았다.

리명박역도의 집권기간 예산지출은 해마다 수십~수백억US\$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년평균 250억US\$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참여정부》 시기 5억US\$정도에 비해 무려 50배에 달하는것이다. (《월간조선》 2009. 12. 1. 《노컷뉴스》 2011. 1. 30)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는 완전히 파산직전에 놓여있다.

리명박역도패당이 집권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들에게 내출결급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56%에 달하고있다. 지어 2010년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재정파탄으로 빚을 물어줄수 없다고 공식선포하는 전례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향신문》 2010. 7. 14. 《연합뉴스》 2011. 3. 31)

《사회복지확대공약》도 다들 바 있다.

보수패당이 국민자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오히려 역도의 집권기간 14만명 이상의 국민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어졌던 대우기 최근에 리명박패당은 최저생계비지원대상수를 종전의 15만명에서 147만명으로 8만명 더 줄이고 지원액수도 3~10%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아 민심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노컷뉴스》 2012. 6. 4. 《뉴스1》 2012. 7. 18)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떠들면서 비정규직로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 《공약》을 내놓았지만 지난 2007년 정규직임금의 64%정도였던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임금은 현재 49%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정규직로동자들의 사회보험가입률이 80%정도인 반면 비정규직로동자들의 경우 38~44%정도에 불과하였다. (《오마이뉴스》 2012. 2. 22. 《이데일리》 2011. 10. 28)

보수패당의 집권기간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KT》, 《한국철도공사》 등 대기업들과 공공기업들에서 수많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쫓겨나 실업자로 전락되었지만 보수패당은 오히려 《복지》와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여 투쟁에 나선 이들에게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주간경향》 2011. 8. 16. 《참새상》 2011. 6. 16. 《통일뉴스》 2011. 2. 15. 《경향신문》 2011. 7. 25)

실태는 바로 이러하다. 지금 남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명박역도패당의 《공약》에 대해 《멍 빈 약속》이라고 조소하면서 침을 뱉고 돌아서는것이 우연치 않다.

실로 보수패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민심을 우롱하고 기만하기 위한 거짓 《공약》이며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이야말로 《사기협잡의 왕초》, 《거짓말쟁이무리》라는것이 역도의 집권 5년간 남조선인민들이 뼈저리게 찾은 교훈이다.

김철수
(다음호에 계속)

속담에 창녀의 절개자랑이라는 말이 있다.

낯을 들고 다닐수 없는 처지에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제멋에 겨워 제자랑을 하며 비위풍계 행하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제 처지도 모르고 늘어대는 꼴이 공창녀의 절개자랑을 연상시킨다.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의 친형인 전 《국회》의원 리상득이 부정부패로 구속된데 이어 역도의 최측근중의 하나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희중이 부패범죄사건에 걸려 사퇴하는 일이 또 벌어져 인민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상득은 리명박 《정권》에서 《상왕》, 《영일대군》, 《만사형통》, 《권력우의 권력》으로 불리며 역도를 좌우지하는 최고권력을

완벽한 부패 《정권》의 말로

행사해왔다.

《대통령》의 형이라는것을 등대고 《형님권력》을 휘두르며 눈집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대기업들과 은행들로부터 역대의 몸치돈을 뽕뽕뽕 때먹은 리상득이 저축은행사건피해자들에게 대대적 면살을 집어주어 닭알새레, 물벼락에 맞는 줄종을 겪었으며 끝내는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김희중은 지난 15년간 리명박의 집사노릇을 해온자로서 역도가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개인심부름을 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자리에 앉혀있었다.

김희중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역대의 금품을 받

아력은 형의가 제기되자 어물쩍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수사결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황급히 사표를 내는 놀음을 벌리었다.

이로써 리명박의 집권과 파쇼통치를 뒷받침해오던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행정리상득, 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전 청와대 비서관 리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 등 측근들과 역도의 친척, 처견속속 40여명이나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목이 떨어지거나 오라를 지고 구치되었으며 역도는 더욱더 헤어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리명박 《정권》이 얼마나 썩은 《정권》인가를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남조선의 여론들은 리상득이 몸치돈을 받아먹은 시점이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이던 2007년 가을이었고 그가 보수세력의 지원에 한몫한 《특등공신》들의 회합인 《6인회》의 거두라는점에 주목하고있다.

말하자면 리상득이 자기가 받은 역대의 돈을 17대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바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리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자체가 부정부패 《정권》로 라인될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가득이나 수세에 몰려 가뻘을 물어취고있는 리명박에게 있어서 이번엔 폭로된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역대통치패들과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리명박 《정권》처럼 민생은 안중에 없이 일반서민들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한판돈을 저금한 돈까지 《대통령》과 아들, 딸, 사위, 사돈, 처사촌, 동서들, 측근들이 너도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펼쳐나 경쟁식으로 권력을 약용하여 벌어들이고 랑징한 그런 《정권》은 일찌기 없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리명박 《정권》은 도적질로 완벽한 《정권》, 부정부패와 반역으로 완벽한 《정권》, 후안무치와 뻔뻔스러움으로 완성된 《정권》, 첩보와 물림치, 표리부동으로 완성된 《정권》으로 남조선인민들의 규탄을 받고있다.

리영진

놓을 때까지 동족대결과 부정부패로 임기를 마쳐 채우겠다는 뜻》 등의 내용으로 된 글이 파다하게 돌아 인기를 끌고있다.

가관은 인터넷상에서도 소문이 그대로 현실로 확정되고있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얼마전 리명박은 현병철을 《인권》위원장 임명장으로 또다시 내세웠다. 현병철로 말하면 현집권세력의 파쇼독재행위를 앞장에서 비호두둔하는가 하면 그 무슨 《북인권》문제를 요란스레 제창하며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앞장에서 고취한자로서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세계리내부에서조차 그의 연임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이 그를 또다시 《인권》위원장에 내세웠으니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이번이 아니다.

이번에 리명박은 리동판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전 통일비서관이었던 김영호를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와 《인권》대사직리에 임명하였다. 벼속까지 친미, 친일군성이 짙 들어차고 동족대결이 이끌어낸 이런 리명박에게 다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았으니 리명박의 속심은 불모든 변하다. 임기말까지 친미친일사대와 동족대결을 계속 강화하겠다는것이이다.

문제가 또 있다.

지난 7월 30일 리명박은 자기의 수족노릇을 하던 은진수를 《보보수감자》라는 명목으로 가석방시켰다. 남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저축은행부정부패사건의 주범으로 그 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기도 전에 은진수를 가석방시켰것은 실로 남조선인민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구치소의 죄수까지 싸고들면서 죄를 무마시키고 수감자가 벗어터 머리를 쳐들고 활개치며 또다시 부정부패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있으니 리명박 《정권》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리명박의 《대국민사과》 이후 펼쳐진 현실은 《사이후이》의 말그대로 죽을 때까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야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며 남은 집권기간 인민들의 혈세를 빨아 제배를 불리우겠다는 더러운 야욕을 토포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리명박 《정권》이 《절름발이오리》가 아니라 《식물(정부)》이라는것은 각계의 일치한 주장이다.

정치승장이나 다름없는 리명박이 이제 남은 몇개월일 기간 집권하면서 집권기간 산갈이 쌓아온 죄악에 대해 인민앞에 사죄하고 더러운 약속이나 안고 무덤으로 찾아가는것만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정권》심판의 대상은 《새누리당》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이 또다시 현 집권자의 탈당을 거론하며 《차별화》를 더욱 요란스레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심은 거기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시간이 흐름수록 《차별화》라는것이 《정권》심판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심기만용이라는것이 날날이 드러나고있기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있는 리명박의 내곡동주택부지불법구입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내곡동주택부지불법구입사건은 지난해 5월 리명박이 퇴임후 쓰고살 집을 마련하

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2 600㎡의 부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다.

당시 리명박은 부지구입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 리시형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이게 하고는 여기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하게 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이 리지자 사회 각계에서는 이를 《내곡동계이트》로 라인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권력의 시너로 전락된 검찰은 7개월동안이나 수사를 질질 끌다가 리명박을 비롯한 사건혐의자 7명을 모두 무죄의 처분을 내주어 수사를 종결해치었다.

이것은 즉시 사회 각계의 커다란 비난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국민과 야당을 바로 취급하고있다.》, 《검찰이 저지른 특대형사구속》이라고 비난하면서 《특검법》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파헤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인터넷들에서도 《전혀적인 봐주기, 면죄부사》, 《술한 의혹만 남긴 내곡동구속》, 《리명박앞에서 작아지는 검찰》 등의 제목으로 검찰의 도발적인 어부갈증을 폭로 단죄하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나왔다.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번져지자 《새누리당》패들은 검찰수사결과를 두둔해나섰다가는 역풍을 맞을수 있다

는 우려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다.》느니 뉘나 하며 당이 제기한 《특검법》 도입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립장을 보였다.

하여 《새누리당》은 제 19대 《국회》개원과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과정에 《청와대를 비호하지 않겠다.》고 회소리를 치면서 리명박이 연후면 주택부지구입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하고 지어 《특별검사》도 민주통합당이 임명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새누리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전 집권자들의 주택문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복잡하게 늘이고있다. 뿐만아니라 민간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서도 《새누리당》패들은 같은 립장을 취하며 방해물고있다.

보다싶이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세신》과 《차별화》를 떠들면서 또 돌아앉는 리명박의 권력형부정부패, 인권유린행위를 파헤치는데서는 한사코 원새기를 고고있다.

하긴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도 계편이라고 리명박과 뿌리도 지반도 같은 《새누리당》이 《차별화》를 운운한것자체가 까마귀가 백로로 되겠다는것만치나 소로운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새누리당》이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떠들고있지만 《정권》심판의 대상은 《새누리당》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명당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새누리당》의 망동을 보면서 재집권을 위한 기만과 협잡에 미쳐들어치는 반역당의 더러운 정체를 똑바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권》 심판의 대상은 《새누리당》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명당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새누리당》의 망동을 보면서 재집권을 위한 기만과 협잡에 미쳐들어치는 반역당의 더러운 정체를 똑바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이러한 모략소동에 대한 지원금액을 대폭 늘인 사실은 보수패당이 《리산가족교류》를 운운하는 목적이 바로 저들의 비렬한 동족대결과 유인암치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었다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최근에 남조선에서 벌어진 《통일항아리》 제작논쟁이나 이번 《상봉》이라는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혈육의 정과 돈과 물건을 미끼로 하여 북의 주민들을 유인,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박정숙녀성이 기자회견에 북한처럼 남조선에 가있는 《탈북자》들이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쯤 저들의 리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 친척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마저 막아나서는 보수패당이 산송장선지에 불과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폐기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리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진의도는...

《리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이라는것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3년내로 《리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단절된 남북당국 및 적십자간 대화로를 통해 유해해 복원》한다느니, 전면적생사확인과 시신교환, 상봉전화 등을 추진한다느니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 무슨 《원칙》을 떠들며 북과 남의 수많은 홀어친 가족, 친척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마저 막아나서는 보수패당이 산송장선지에 불과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 음해부터 《리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정도 더 많이 지원한다는것이 밝혀졌다.

그들이 말하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류》란 제3국을 통한 《가족상봉》을 의미하는것이이다.

제3국에서 진행되는 이 《상봉》이라는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혈육의 정과 돈과 물건을 미끼로 하여 북의 주민들을 유인,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박정숙녀성이 기자회견에 북한처럼 남조선에 가있는 《탈북자》들이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쯤 저들의 리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 친척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마저 막아나서는 보수패당이 산송장선지에 불과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 음해부터 《리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정도 더 많이 지원한다는것이 밝혀졌다.

그들이 말하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류》란 제3국을 통한 《가족상봉》을 의미하는것이이다.

제3국에서 진행되는 이 《상봉》이라는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혈육의 정과 돈과 물건을 미끼로 하여 북의 주민들을 유인,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박정숙녀성이 기자회견에 북한처럼 남조선에 가있는 《탈북자》들이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쯤 저들의 리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 친척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마저 막아나서는 보수패당이 산송장선지에 불과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

이러한 모략소동에 대한 지원금액을 대폭 늘인 사실은 보수패당이 《리산가족교류》를 운운하는 목적이 바로 저들의 비렬한 동족대결과 유인암치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었다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최근에 남조선에서 벌어진 《통일항아리》 제작논쟁이나 이번 《상봉》이라는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혈육의 정과 돈과 물건을 미끼로 하여 북의 주민들을 유인,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박정숙녀성이 기자회견에 북한처럼 남조선에 가있는 《탈북자》들이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쯤 저들의 리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 친척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마저 막아나서는 보수패당이 산송장선지에 불과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 음해부터 《리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정도 더 많이 지원한다는것이 밝혀졌다.

그들이 말하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류》란 제3국을 통한 《가족상봉》을 의미하는것이이다.

제3국에서 진행되는 이 《상봉》이라는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혈육의 정과 돈과 물건을 미끼로 하여 북의 주민들을 유인,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박정숙녀성이 기자회견에 북한처럼 남조선에 가있는 《탈북자》들이 랑치하는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쯤 저들의 리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 친척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마저 막아나서는 보수패당이 산송장선지에 불과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민간차원의 리산가족교

활발히 진행된 해양체육경기들

얼마전 공화국에서 전승컵 체육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정, 헤엄, 물에 뛰어들기, 수중체조무용을 비롯한 여러 해양종목경기들 가운데서 특히 평양의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진행된 수중체조무용경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몇몇사이에 수준이 부족 오른 수중체조무용은 올해에만도 2차례의 모범출연을 하였다. 이번엔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백마산체육단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었다. 1인경기에서는 앞서 진행된 보천보체육대회에서 2등을 하였던 백마산체육단의 리지향선수가 1등을 하였으며 2인경기에서도 같

은 체육단의 김정희, 김진경 선수들이 모두 순위권에 들었다.

물에 뛰어들이경기에서는 4.25체육단 선수들이 특기 발휘하였다. 이 체육단 선수들은 동작의 정확성을 높이고 물갈기기술까지 손색없이 수행하여 1m탄성관(남, 녀), 10m고정관(남), 3m탄성관(녀), 10m고정관 동시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하였으며 남, 녀 개인종합우승을 기록하였다. 또한 물에서의 추구라고 할수 있는 수구경기에서는 중앙체육학원 남자선수들과 수산성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하였다.

이밖에 조정, 카누, 요트, 물스키 등 여러 종목경기들이 치열하게 벌어진

이번 경기대회는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분발해 나신 체육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수영교육을 잘하고있다. -평양장성중학교에서-

음과

살균 및 소독효과가 큰 은소금

물음: 최근 첨단기술개발 교류소에서 개발한 은소금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는데 은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싶다.

답: 은소금은 피부소독과 피부재생, 한증욕, 부식방지 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200~400개의 은이온자 40~80nm의 크기로 안정화한다음 소금결정에 결합시킨 은소금은 살균대상균이 없고 소독시간이 빠르며 뛰어난 세포제능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의학과 화장품제조분야에서 전망이 큰 제품으로 인정받고있다.

은소금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증후 살균이 한결 부드럽고 주름살이 퍼져 팽팽해지며 각질이 제거된다고 한다. 은소금은 주름과 습진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무좀이나 습진이 난 부위에 비벼바르면 그 즉시 가려움증이 없어지면서 낫는다. 피부가려움증이나 땀띠가 날 때 손에 은소금을 조금 묻혀 가려운 부위와 땀띠자리에 바르면 즉시 효과를 나타낸다. 권도염과 축농증의 경우 은소금으로 목욕수, 코함수를 하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완치될수 있다고 한다. 이발이 할 때에도 은소금을 조금 묻혀 조는 부위에 묻고 있으면 순간에 낫는다.

물음: 은소금 1kg에 손은이 3.2g 들어있다고 하는데 실지 은이 들어가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답: 은소금에 실지 은이 들어있는가를 알자면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쉽게 검사해볼수 있다. 우선 은소금

을 고화합동도로 풀고 직사광선을 비치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것은 나노은복합염으로부터 빛촉매에 의하여 산화반응으로 넘어가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은소금은 아무런 색변화도 없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은소금을 물에 풀면 회색의 부유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끓여내어 열을 가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다가 1000°C이상에 이르면 순으로 용융된다. 그러나 정제소금처럼은 부유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검사원리는 나노은으로부터 염화은으로, 다음 산화은으로 환원되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은소금은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약간의 물에 풀어서 리용한다.

안경과 시력

자외선은 눈의 수정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자외선이 오래동안 수정체에 들어오면 백지가 해빛을 받아 색이 변해듯이 수정체도 변색된다.

색안경은 햇빛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것이다. 년중에 자외선량이 제일 많은 시기는 3월부터 9월까지사이이다. 이 시기에 밖에 나가 나갈 때 그리고 자외선이 세게 반사되는 바다기슭이나 산속을 거닐 때 혹은 눈내린 날에 색안경을 끼면 눈의 피로를 막을 수 있다. 색안경이라고 해서 다 좋은것은 아니다. 색안경의 규격이 맞다고 해서 계속 끼고있으면 눈은 점점 빛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진한 색안경을 요구하게 되며 빛을 조금만 받아도 눈병에 걸리기 쉽다. 자기 눈에 맞는 색안경을 선택하려면 먼저 색깔을 고려해야 한다.

색안경은 여러가지 가지광선, 밤색안경과 분홍색안경, 가지색안경은 주로 자외선을, 풀색안경은 적외선을 막는다. 또한 색안경을 낀 다음 물건을 잘 식별할수 있는것을 풀라야 한다. 거울앞에 마주 서서 색안경을 낀 다음 자기 눈동자를 어렵듯이 볼수 있을 정도이면 좋다. 색안경은 방안에서와 호린날, 비오는 날에는 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시력과 색깔, 감각에 영향을 주어 눈에 피로가 오기때문이다.

자동색조절안경은 천천히 걸을 때는 일없지만 자동차를 타고 갑자기 컴컴한 굴로 들어가면 안경색의 변화와 눈조절이 인차 맞지 않아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위험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허란설현(16세기의 재능있는 녀류시인)의 남편 김성림에게는 송도남이라는 막역한 친구가 있었다. 송도남은 풍을 잘하였지만 성림은 그렇지 못하였다. 하루는 송도남이 그의 집에 들어서면서 인사말을 하였다. <덕석림이 멍석림이 김성림이 있느냐?>

8월의 절기

8월의 절기에는 립추와 처서가 있다. 립추는 대서와 처서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 8월 9일경에 있게 된다.

이때부터는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며 무더위가 가시진다. 립추를 전후로 한 시기가 겨울김장용담새를 심는 적기이므로 농촌에서는 김장용배추, 무우, 파를 심기에 바쁘다. 사람들은 김장용담새를 심은 후에도 풀거름을 잘 만들어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였다. 옛날에는 립추후에 계속 장마가 지면 농사가 망한다고 하면서 날씨가 개이기를 바라는 <기청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처서는 립추와 백로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8월 23일경, 음력으로는 7월

에 있게 된다. 처서는 여름의 더위가 가시치고 날씨가 서늘해진다는 뜻이다. <곳 처>는 옛날에 장소를 나타냄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의미도 나타내었다. 처서때에는 뜨거운 해벌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는다. 사람들은 논두렁이나 야산의 풀을 깎아 다음해 농사를 위한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처서날 비가 오면 그해에 흉작을 면치 못한다고 하여 <독안의 곡식도 줄어든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에 관심을 많이 돌려온 선조들은 이때에 벼의 마디가 몇개 있는가를 세어보고 셋이 되면 이삭이 패게 된다고 하였다.

올해의 립추는 8월 7일, 처서는 8월 23일이다.

우리 말 상식

<밀고나갔다>와 <벌려나갔다> 설을 험있게 밀고나갔다.

<벌려나갔다>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운운이나 전투의 계획을 세우고 시작도 하고 총화도 하면서 조직적행해진것을 이르는 말이다. 레: 밀차를 밀고나갔다. 또한 어떤 사업이나 일을 맡아 떠밀어나가나것을 이르는 말이다. 레: 만수대지구 살림집진

귀뚜라미, 맨드라미

에게 다음번에도 친구가 오 늘처럼 인사하면 이리이리하 라고 일러주었다.

<덕석림이 멍석림이 김성림이 있느냐?> 그를 맞아들이며 이렇게 대꾸하였다. <귀뚜라미, 맨드라미 송도라미 있느냐?> ※ 덕석, 멍석-자리갈래의 일종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청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과목을 새로 내오고 <우리 민족> 강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해설강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평양방송으로는 이번 학기에 8월 8일(수요일) 두번째시간 부터 15강의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목욕을 오래전부터 청결, 미용, 건강, 병치료의 수단으로 하여왔다. 목욕은 2000여년전부터 중시되어 세나라시기의 기록에는 왕이 동천에서 목욕하자 몸에서 광채가 났고 왕비가 복천에서 목욕하자 입술의 붉집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가정들에서는 어린애의 피부를 회개 하기 위하여 복숭아꽃물로 목욕을 시켰다. 어른들은 란초를 삶은 물에 목욕을 하여 피부를 회고 부드럽게 하였다. 리조시기에 이르러 목욕은 대중화되어 명절과 제사, 경

을 하였다. 목욕이 대중화되면서 대형함자막과 대야가 많이 제조되어 겨울에 사람들은 물을 덥혀 부엌이나 헛간에서 하였다. 랑만관료들은 나무로 만든 둥근 목통에 더운물을 담아 목욕을 하였다. 리조시기 온천 및 한중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한중을 한증욕 또는 발한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치료를 위주로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목욕의 역사

1422년 세종왕시에는 전의감(왕실의학을 맡아보는 관청), 혜민국(질병을 맡아보는 관청), 제생원(약재를 맡아보는 관청)에서 의원을 보내 병상태를 진단한 다음 한중을 하도록 하였다. 한중탕에는 소나무잎을 깔아놓고 4~5분정도도 반복하도록 하였다. 현대적인 대중목욕탕은 1924년 평양에서 처음 설치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날에 하는것을 전통화하였다. 음력 6월 보름의 류두절에는 일가친척들이 많은 시내나 산간의 폭포에 가서 목욕과 못말이를 하면서 하루를 지냈다. 큰 집에서는 목욕시설인 정방(뒤간)을 설치하였다. 혼례를 앞둔 신부는 한살을 회개 하기 위하여 인삼잎을 달인 삼탕이나 창초잎을 삶은 창초탕, 복숭아잎탕, 마늘탕, 쌀겨탕에 목욕

하였다. 목욕이 대중화되면서 대형함자막과 대야가 많이 제조되어 겨울에 사람들은 물을 덥혀 부엌이나 헛간에서 하였다. 랑만관료들은 나무로 만든 둥근 목통에 더운물을 담아 목욕을 하였다. 리조시기 온천 및 한중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한중을 한증욕 또는 발한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치료를 위주로 하였다.

채식을 하여야 하는 진짜 이유

왜 채식을 하여야 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음에 건강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육식을 하면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최근의 연구성과는 동물성지방의 섭취는 심장질환 및 암과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주고있다. 물론 틀린 대답이 아니다. 그러나 채식을 하여야 하는 진짜 이유는 생태계의 건강때문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13억마리의 소를 비롯한 많은 가축이 있는데 이 가축들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어치운다.

산림을 목초지나 경작지로 만들어 자연을 파괴하는것은 둘째치고 450g의 소고기생산에 7kg의 곡물과 콩 2g생산 1만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에 해당되는 노력값은 얼마나 많은가. 또한 1350kg의 콩과 강병이는 22명이 먹을수 있으나 이것으로 소를 길러 고기와 우유를 내는 경우 다만 1명만 이 먹을 수량이 된다. 식량공급의 비효율성 그리고 가축사육을 위해 채벌되는 엄청난 산림면적, 이 모든 것이 육식보다 채식을 주로 해야 하는 진짜 이유이다.

배

배백이란 혼례를 마친 후 신부가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명절 <구례>라고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신부는 비로소 시댁의 한성원이 되었음을 인정받는것이다. 이때 신부가 친정에서 준비해온 술, 안주, 밥, 대추 등을 상에 차려놓고 시댁식구들에게 절을 올리면 어른들은 절을 받으면서 레물을 주거나 치마에 대추 또는 밤을 던지었다.

민족음식만들기

관고기 김치볶음

- 음식감(2명분) 삶은 단고기 200g, 배추김치 100g, 파 30g, 마늘 10g, 생강즙 5g, 간장 10g, 방아풀 1g, 참기름 1g, 기름 30g, 고추가루 1g, 소금 1g, 후추 1g, 맛내기 0.5g

① 삶은 단고기살은 길이, 너비 3cm~3.5cm, 두께 0.3cm로 썰고 배추김치는 길이 3cm, 너비 2cm정도로 썬다. 파는 채치고 마늘과 방아풀은 다진다. ② 기름을 두른 단 볶음

판에 단고기살을 두고 볶는다. 여기에 물기를 짜온 배추김치를 두고 다시 볶는다. ③ 다 익으면 간장, 생강즙, 고추가루, 소금, 후추가루, 맛나기를 두고 맛을 들인다. ④ 이것을 접시에 담고 참기름을 친 다음 다진 방아풀을 뿌려 더울 때 낸다.

단편 소설

기 리 기 (7)

정윤기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는데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들여다본 김향순은 소리없이 한숨을 내쉬고 나서 정윤기의 필치시위때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찾아 들었다. <향순이, 왜 얼굴색이 어두운가?> 김향순은 와들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어머, 전 쉬시는줄 알고...> <난 네 병을 알아. 문밖에서 임자들이 말하는걸 들었지. 의사선생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흥인이라고 했지요. <아니, <사거>...죽어도 가고싶은 곳, 나에겐 그곳이 있다네.> 김향순은 울고있는 심정이였다. 정윤기의 병은 간암과 취장암이 겹친 상태에서 매우 위독했다. 아버지 같은분

에게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선생님, 다 말씀하세요. 가고싶으신 곳도, 만나고싶으신분들도... 그리고 잡숫고싶으신것들도...> <필요없네. 난 이전 한 곳에만 가면 되는 사람일세.> 김향순은 정윤기가 가고싶다는 곳을 묻기가 두려웠다. <어허, 입자는 일이 바블렌데 내 걱정은 말고 가보라구.> 그래도 가고싶지 않아 주밋거리던 그가 한참만에야 일어났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부터 정윤기로인의 치료를 돕자면 미리 결의 사람들에게 말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서 그러라구.> 김향순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소리없이 나갔다. 입원실에 누운 정윤기는 명상에 잠기었다. 가을하늘을 날아가는 기리기때... 끄르륵- 끄르륵-

정윤기는 또다시 엄습하는 진통으로 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김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을 뜨기 힘들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정윤기는 이를 막고고 일어나자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또 진통이 오나요?> <일... 없네...> <제 의사선생을 불러오겠어요.> <아니, 찾지 말게.> 김향순은 수건으로 정윤기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주었다. <향순이, 날 데려다주겠나?> <어디로요?> <역으로...> <안돼요. 절대로...> 몸부림치며 머리를 흔드는 김향순이 간호부를 소리쳐 찾는데 리경윤이 들어왔다. <경윤선생, 진통을 억제하는 주사를 좀 부탁해요.> 정윤기는 손을 짓고나서 김향순을 가까이로 불렀다. <내 웃자머니에서 수첩을 좀 꺼내주세요.> 황급한 김향순이 시키는대로 했다.

정윤기는 또다시 엄습하는 진통으로 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김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을 뜨기 힘들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정윤기는 이를 막고고 일어나자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또 진통이 오나요?> <일... 없네...> <제 의사선생을 불러오겠어요.> <아니, 찾지 말게.> 김향순은 수건으로 정윤기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주었다. <향순이, 날 데려다주겠나?> <어디로요?> <역으로...> <안돼요. 절대로...> 몸부림치며 머리를 흔드는 김향순이 간호부를 소리쳐 찾는데 리경윤이 들어왔다. <경윤선생, 진통을 억제하는 주사를 좀 부탁해요.> 정윤기는 손을 짓고나서 김향순을 가까이로 불렀다. <내 웃자머니에서 수첩을 좀 꺼내주세요.> 황급한 김향순이 시키는대로 했다.

정윤기는 또다시 엄습하는 진통으로 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김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을 뜨기 힘들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정윤기는 이를 막고고 일어나자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또 진통이 오나요?> <일... 없네...> <제 의사선생을 불러오겠어요.> <아니, 찾지 말게.> 김향순은 수건으로 정윤기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주었다. <향순이, 날 데려다주겠나?> <어디로요?> <역으로...> <안돼요. 절대로...> 몸부림치며 머리를 흔드는 김향순이 간호부를 소리쳐 찾는데 리경윤이 들어왔다. <경윤선생, 진통을 억제하는 주사를 좀 부탁해요.> 정윤기는 손을 짓고나서 김향순을 가까이로 불렀다. <내 웃자머니에서 수첩을 좀 꺼내주세요.> 황급한 김향순이 시키는대로 했다.

정윤기는 또다시 엄습하는 진통으로 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김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을 뜨기 힘들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정윤기는 이를 막고고 일어나자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또 진통이 오나요?> <일... 없네...> <제 의사선생을 불러오겠어요.> <아니, 찾지 말게.> 김향순은 수건으로 정윤기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주었다. <향순이, 날 데려다주겠나?> <어디로요?> <역으로...> <안돼요. 절대로...> 몸부림치며 머리를 흔드는 김향순이 간호부를 소리쳐 찾는데 리경윤이 들어왔다. <경윤선생, 진통을 억제하는 주사를 좀 부탁해요.> 정윤기는 손을 짓고나서 김향순을 가까이로 불렀다. <내 웃자머니에서 수첩을 좀 꺼내주세요.> 황급한 김향순이 시키는대로 했다.

정윤기는 또다시 엄습하는 진통으로 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김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을 뜨기 힘들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정윤기는 이를 막고고 일어나자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또 진통이 오나요?> <일... 없네...> <제 의사선생을 불러오겠어요.> <아니, 찾지 말게.> 김향순은 수건으로 정윤기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주었다. <향순이, 날 데려다주겠나?> <어디로요?> <역으로...> <안돼요. 절대로...> 몸부림치며 머리를 흔드는 김향순이 간호부를 소리쳐 찾는데 리경윤이 들어왔다. <경윤선생, 진통을 억제하는 주사를 좀 부탁해요.> 정윤기는 손을 짓고나서 김향순을 가까이로 불렀다. <내 웃자머니에서 수첩을 좀 꺼내주세요.> 황급한 김향순이 시키는대로 했다.

정윤기는 또다시 엄습하는 진통으로 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김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을 뜨기 힘들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정윤기는 이를 막고고 일어나자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또 진통이 오나요?> <일... 없네...> <제 의사선생을 불러오겠어요.> <아니, 찾지 말게.> 김향순은 수건으로 정윤기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주었다. <향순이, 날 데려다주겠나?> <어디로요?> <역으로...> <안돼요. 절대로...> 몸부림치며 머리를 흔드는 김향순이 간호부를 소리쳐 찾는데 리경윤이 들어왔다. <경윤선생, 진통을 억제하는 주사를 좀 부탁해요.> 정윤기는 손을 짓고나서 김향순을 가까이로 불렀다. <내 웃자머니에서 수첩을 좀 꺼내주세요.> 황급한 김향순이 시키는대로 했다.



김향순과 리경윤은 눈길을 마주치며 자기들앞에 누운 인간의 초인간적인 정신에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향순이, 내 마음을 알겠